

축 사

천고마비, 만추지절인 요즘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느라 바빠 움직이고,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내놓는 학술발표회가 한창입니다.
때마침 대한불교관음종에서도 개산조
태허당 홍선 조사님의 탄신 105주년을
맞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허 스님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서시다 발심하여 선암사의 대강백이신
경운화상을 은사로 하여 선암사에서 출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화경에 심취하셨던 스님께서는
일불승(一佛乘) 사상을 펼치시고자,
1957년 일승불교 현정회를 설립하여
법화 신앙을 선양하시기도 했고, 파고다
공원에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
설법을 펼치시기도 했으며, 동양방송의
전신인 라디오 서울에서 신앙 강좌도
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해동천태법화법
맥소고」를 보면, 조사 스님께서
이 땅에 법화사상의 전통을 세우시고자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월간 『범성』을
창간하여, 문서 포교를 통해 법화
사상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많은
친필 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오늘 종단 차원에서 개산조
태허 조사의 친필 원고와 범성지에
게재된 각종 연재된 글을 재조명하고,
이것을 학자들과 연구하여 태허 스님의

**법화경사상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한다니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중생의 불성을 일깨워주는 일불승의
도리를 열어주신 태허조사의 뜻과
사상을 살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불교가 나갈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대한불교
관음종의 모든 종도 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종단의 대덕스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관음종은 물론 한국
불교의 나아갈 바를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오랜
세월 큰일을 해 오신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대한불교관음종이 한국불교**

**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11월 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